

진실한 인간관계로 열려있는 회사를

남 석 우 사장



• 약력 : 1952년생, '76년 명지대 전자공학과 졸,
'82년 데이콤 이사

(주) 콤텍시스템의 사업
전략은?

현재 우리 회사는 데이터통신

관련 60여종의 통신장비를 자체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장비는 현재
외국의 몇몇 업체로부터 기술제

휴 또는 수입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Total Network Solution을 제공하는 전문회사로써 이미 은행, 증권, 제조 유통, 항공 등 많은 기관에 종합 네트워크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도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장확대를 위하여 고객의 욕구에 맞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경제적이며, 안정되고 전송효율 높은 네트워크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 기술개발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고급인력의 확보와 기술력 증대 및 기술개발에 금년도에 1~2억 투자 할 생각입니다.

통신시장에 대한 전망은?

최근 우리 통신시장의 상황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과도기, 즉 기술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사회환경이 복잡해 짐에따라 통신에 관한 욕구가 증가 및 다양화 되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불때 관련업체의 시장판도가 기술우위 지향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이며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분야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 위주의 통신 시장은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분야라 생각합니다.

현재 통신산업구조의 개선점이 있다면?

향후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해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기초소재, 반도체 등 기반기술에 보다 더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Network System 구축 등을 담

당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략은?

외국기술과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통신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신시장개방 압력까지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예를들면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장비분야는 일부 과감하게 개방을 시도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기술과 격차를 좁혀갈 필요가 있겠지만 통신사업 즉 서비스업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국인한테 하루 빨리 개방하여 경쟁체제와 노하우를 쌓은 후 개방되어야 합니다.

경영철학을 소개해 주신다면?

글쎄요, 경영철학이라기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직내에서 또는 직원과 고객 상호간 진실한 인간관계로 열려 있는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편에서서 일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1년 중점 개발분야는?

우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금년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VOICE 와 DATA 또는 이미지를 같이 전송할 수 있고 통합전송시스템개발에 역점을 두고 SUBT-1 Multiplexer, DSU/CSU, 망관리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